

심각해지는 미얀마 종교·민족 갈등...왜?

영국 식민시절 소수민족 우대 정책 반목... '국경없는 의사회' 면허 정지 UN인권보고에서 "종족 및 종교분쟁 본격화 우려"

다민족·다종교 국가임에도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미얀마의 종교·민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3월 3일 '국경없는 의사회'의 라카인주 활동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서의 의료활동 면허를 취소했다. 그 이유는 로힝야족을 고용했기 때문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는 전체 인구 330만 명 중 108만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다. 로힝야족 133만 명 중 대부분이 라카인주에 산다.

사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로힝야족이 미얀마가 영국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전락적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영국 식민 시절 미얀마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불교도들과 주요 민족인 버마족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소수민족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우대하는 등 분열정책을 펼쳤다. 그 갈등의 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뿌리깊은 반목은 2012년 불붙었다. 로힝야족 청년들이 불교도 소녀를 집단성폭행 하며 유혈충돌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태는 라카인주를 넘어 이슬람교도와 불교

도의 충돌로 번져 최대 280명이 넘게 숨지고 약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인권보고관은 이러한 종교분쟁이 미얀마의 발전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퀀타나 UN인권보고관은 "민주화 개혁 와중에 사회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종족 및 종교 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식민시절 분열정책 잔재 남아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은 130여 개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에서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다. 미얀마는 불교를 주로 하는 버마족이 약 70%에 이르며 카친, 카렌, 친산, 쁘야, 몬 등 소수민족이 약 25%, 중국 및 인도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1948년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자치화대와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뤄지며, 군부에 의해 억눌려 있던 종교·민족간의 감정이 보다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도를 중심으로 이슬람교도 남성이 불교도 여성과 결혼할 때 불교로 개종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



다민족·다종교 국가임에도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미얀마의 종교·민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태다. 이슬람교 규율에 따라 불교도 남성이 이슬람교 여성과 결혼할 때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미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얀마는 또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31년 만에 인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민족과 종교를 기록하도록 했다. 소수민족 단체들과 반군들은 인구조사로 소수민족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산주 반군단체인 팔라웅해방전선은 최근 정부에 낸 탄원서에서 "정부가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수민족들을 분열시키

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미얀마 내 스님들이 1000여 명이 모여 이를 해결하려는 대규모 법회를 가지는 등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국내 불교계 NGO 관계자는 "불교국가인 만큼 부처님의 자비정신 하에 화합하는 모습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종교가 다르더라도 평화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불가촉천민 300명 불교개종

힌두교 사원 출입 금지 등 계급 차별에 저항



수계를 받고 있는 불가촉천민들

인도의 불가촉천민 300여 명이 단체로 불교 개종을 해 화제다.

뉴인디언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에 따르면 '힌두교 사원 출입금지' '지역 공동 화장터' 사용 금지 등 차별 대우를 받아온 세사사무티람 지역의 300여 불가촉천민은 최근 "계급 차별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제출한 28개 탄원서를 관리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당국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사사무티람에는 힌두교 주민들은 3천명인데 비해 불가촉천민은 799명의 세대가 작은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동안 이 지역 힌두교인들은 사원 출입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불가촉천민들은 10년 전에 돈을 모아 그들 스스로 마리암만 사원을 짓고 정기적으로 힌두교식 예배인 푸자(puja)를 거행하고 수소가 끄는 짐수레에 신상을 모시고 퍼레이드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목재로 차를 만들어 신상을 모셨지만 힌두교인들은 사원으로 가는 통로를 막는 등 불가촉천민의 종교 활동을 방해해왔다. 그해 9월 인도 법원은 불가촉천민들의 행렬이 힌두교인들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힌두교인들은 여전히 불가촉천민들의 행렬이 공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뉴인디언익스프레스는 "불가촉천민들은 마리암만 신상을 모시고 행렬하는 권리를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마침내 관리 당국의 무성의에 지친 300여 명의 불가촉천민은 불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당국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들은 계급적 차별을 종식할 의지가 없는 관계자들의 태도가 그들을 개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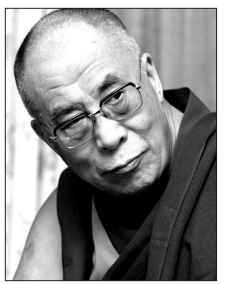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달라이 라마 "서로 만족하면 동성 결혼 OK"

달라이 라마(사진)가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3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은 달라이 라마는 래리 킹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동성 결혼은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며 "두 사람이 진심으로 현실적이고 만족을 느끼며 완전하게 동의하는 관계라면 (동성 결혼도) 괜찮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각자의 종교가 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비신자



에게는 안전하고 합의된 것이라면 괜찮다. 단 협박과 학대는 잘못된 것으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동성 결혼은 유섭과 북·남미 등 서구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교 국가 중에서 아직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이아나 기자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에서는 지옥의 공포를 단지 아이들이 꾸는 악몽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업을 지으면 혀가 뽑히고, 낙태를 하면 마귀가 산모의 내장을 뜯어먹는 등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팔한지옥(八熱八寒地獄)의 광경을 섬뜩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지옥공원'을 통해서도 지옥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태국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왕센스 지옥공원(Wang Saen Suk Hell Garden)은 지옥을 테마로 한 지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지옥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136가지 조각으로 묘사해 공원 곳곳에 설치한 왕센스 지옥공원은 자녀들에게 도덕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인기 주말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아나 기자

중 대기오염에 중국 사찰 "천연향 쓰자"

라마사, 지난해부터 참배객에 천연향 무료로 제공

중국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불교와 도교 지도자들이 스모그 억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China.org에 따르면 신도들이 불교나 도교사원에 향을 피우며 복을 비는 것이 일반적이던 중국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스모그를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향을 피우는 전통이 점차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불교와 도교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원에서 향을 공양할 때 문명인답게 행동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베이징의 유명한 라마사(寺)의 주지 후쉐헝 스님은 "환경보호는 인류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도 스모그를 억제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안시(市)의 팔신궁 도교사원은 "앞으로 친환경 향 제품만을 사용할 것이며 종이나 폭죽 등을 태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환으로 라마사는 2013년 12월



중국 불교·도교사원에서 피우는 향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터 소나무와 삼나무 가루 및 자연재료들로 만들어진 친환경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배객들이 개인적으로 향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향 소모량은 절반으로, 재는 2/3가 줄어 사원의 공기가 현저히 좋아졌고 환경에 대한 신도들의 의식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아나 기자

함부르크 대학, 온라인 비구니수계 강좌 개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이 비구니 수계를 위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해 눈길을 끈다.

함부르크 대학은 3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비구니수계에 관련된 내용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주 동안 영어 강의와 과제 등으로 구성된 다. 강의 주요내용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앤 헤르만, 잠빠 세드론, 까르마 텍세 쇼보 등 여러 여성 학자 수행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울장의 관점에서 본 비구니, 비구니로서의 삶, 그리고 동양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여성 수행자들의 생활과 비구니 수계 복원 문제 등의 주제로 강연한다.

이아나 기자

자성주(自性珠)를 아시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잘못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성주 네이버 검색

.....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보은의 사랑
010-3679-1080, 1899-1042

인간의 길항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 1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법 확인 하는 방법
- 2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 3 시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 4 고탈안,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 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 5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 6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향과 혼돈
 -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향
- 7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자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문화의 범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 8 효소점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정체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속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조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인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랑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메탈,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